

전남쌀 품종 보급·미래기반 조성...식량주권 지킨다

전남농협



박서홍 본부장

박서홍 농협중앙회 전남지역본부장은 지난해 1월 본부장으로 취임한 뒤 농업 현장에서 한 해를 살다시피 보냈다.

그는 취임 첫날 조류 인플루엔자(AI) 방역 현장에 나가며 기념 행사를 대신했다. 눈에 파묻힌 배추밭과 수마가 활취고 간 배 농장 등을 다니며 농부의 시름을 함께하기도 했다. 지난 연말에는 남아도는 쌀을 시장격리해달라고 요구하기 위해 전국 농업조합장들이 모인 청와대 앞 시위장을 찾아 그들 곁을 지켰다.

박 본부장은 지난 23일 만나 가진 인터뷰에서 "전남농협 본부장으로 취임한 뒤 일 년이라는 시간이 훌쩍 흘렀다"며 "농업인이 생산한 농축산물을 국민에게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농업 현장에서 될 수 있는 대로 많은 시간을 쏟았기에 후회 없는 2021년을 보낼 수 있었다"고 돌아섰다.

그는 올해도 코로나19 사태가 지속되는 가운데 농축산물 소비 위축과 인건비·농자재 가격 상승 등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변화와 혁신을 예고했다.

전남농협이 당장 직면한 과제는 농업경쟁비 절감과 노동력 확보, 스마트 농업 확대 등이다. 박 본부장은 이를 해결하기 위한 네 가지 주요 전략을 소개했다.

첫째는 농업인 소득증대와 실익지원을 위한 농업·농촌 미래기반 조성이다.

농도(農道) 전남은 심각한 고령화와 인구의 농촌 이탈로 인해 외국인 근로자에게 노동력을 의존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몰렸다.

지난 한 해만 해도 수해를 복구하고 일손을 돕기 위해 농촌을 찾은 전남농협 인력은 총 1만2313명에 달하고 일한 시간도 5만5148시간이었다.

전남농협은 농촌 인력난을 해결하고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청년농업인과 귀농·귀촌인구 증가를 촉진할 계획이다. 청년농업인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며 그들을 미래 성장 동력으로 키우는 한편 도시민을 대상으로 한 귀농·귀촌 교육을 병행한다.

두 번째 전략은 '스마트농업 플랫폼 보급'이다. 이 역시 농업 경영 비용을 줄이고 인력을 최소화하려는 노력의 하나로 꼽힌다.

전남농협은 농업 현장에 직접적 적용이 가능한 스마트팜 표준화 시설을 개발하고, 농업인에 초기 투자비용을 지원한다. 스마트농업을 배우고 실습할 수 있는 교육장도 마련된다. 축산 부문에서도 스마트 가축시장 플랫폼을 도입해 가축 경매의 효율화를 꾀할 예정이다.

셋째는 농작업 대행사업 확대이다. 농작업 기계화가 상대적으로 낮은 밭농업이 주력할 대상이다. 전남농협은 밭농업에 특화된 농기계를 개발·보급하고 지자체와 협력해 농작업 인건비 지원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운영비 절감을 위해 농작업 규모화도 추진한다. 논농업 부문에서는 농기계 구입비 지원을 늘려 고정 지출비용을 낮춘다.

마지막으로 박 본부장은 전남 대표 쌀 신품종 육성을 통한 고품질 쌀 생산 확대를 내걸었다. 전남농협과 전남도는 지역 기후와 토질에 맞는 전남 쌀 대표 품종인 새청무를 육성해왔다. 올해 새청무는 재배면적 8만5000ha, 생산량 42만t으로 증대되며 단일품종 비율을 끌어올리고 농가소득을 높이는 역할을 맡는다. 전남농협은 전남도농업기술원과 협력해 올해

신품종 '강대찬' 종자 생산을 진행할 계획이다. 이 품종은 2년 뒤 3만ha 계약재배할 목표를 세웠다.

전남농협은 지난해 농협중앙회 창립 60주년을 맞아 전남 쌀 재배품종의 완전한 국산화를 다짐했다. 지난해 6월 박 본부장은 함평군 엄다면 들녘에서 전남쌀 종자주권 독립 선언을 했다. 이 선언에는 전국 최대 쌀 생산지인 전남에서 2024년까지 비외래품종 재배면적을 1000ha 이하로 줄이자는 내용이 담겼다.

박 본부장은 "전남지역 재배환경에 가장 적합한 우수품종으로 꼽히는 '새청무'를 외래품종 대체 품종으로 보급하는 데 전남농협이 적극 나섰다"고, 그 결과 100% 국내산 쌀 재배의 기틀을 마련할 수 있었다"며 "우리나라 종자주권을 지키고 식량안보를 지키기 위해 우리 품종 개발과 보급에 역량을 지원할 때까지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박 본부장은 지난해 코로나19 대응행 속에서도 거둔 성과들로 '농산물 판로 확대'와 '농업인 복지 증진 활동'을 꼽았다.

지난해 전남 로컬푸드 직매장은 일년 새 18개 늘어난 80개로 확장됐다. 직거래 농산물과 소비자의 접점을 넓히려는 노력은 온라인에서도 이뤄졌다.

전남농협은 지난해 10월 지역본부에 마련한 온라인 지역센터를 필두로 총 8개 센터를 구축했다. 이곳에서는 농산물 생방송 판매(라이브 커머스)를 통해 실시간으로 소비자를 만나고 농업인의 판매 비용을 최소화했다. 멜론, 샤인머스켓, 고구마, 한우, 감장김치 등 전남 우수 농축산물 식품은 농협몰 라이브, 네이버 쇼핑라이브 등에 소개되며 '완판'을 이어갔다.

코로나19로 인한 농업 인력 부족과 매출 감소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지원을 펼쳤다.

전남농협과 각 지역농협은 '농업인 행복버스'를 운영하며 지난해 3000여 고령 농업인에 의료 서비스와 장수사진 촬영, 돋보기 제작 지원을 벌였다.

또 고령 농업인 4700가구에 생활용품 전달하고 농업인 5000가구에 구급상자를 보급했다.

취약계층을 돕고 농산물 매출을 확보하기 위해 농산물 꾸러미 5800개를 마련해 지원하는 사업도 벌였다. 20억원 상당 영농도우미 인건비를 지원하며 영세 농민들의 살림살이를 보탤 수 있도록 집중 호우, 가뭄, 태풍 등으로 농작물 피해를 입은 농업인에게 지원된 무이자 자금은 865억원에 달한다. 피해 복구 예산은 5700만원이 들었다.

박 본부장은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 전남농협 모든 구성원이 '함께하는 100년 농협'이라는 농협 비전 달성을 위해 발 벗고 나섰기에 가능했던 성과였다"며 "올해 설 명절부터는 농축수산물 상한가액이 20만원으로 오르기에 전남농협은 최고의 품질과 합리적인 가격으로 농축산물 선물세트를 마련해 소비자와 농업인 생산자가 상생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 "고향에 기부하면 지자체가 지역 특산물을 담례품으로 주는 '고향사랑 기부금법'이 내년 본격 시행되면 농촌 재정 확보와 특산물 소비 활성화가 기대된다"며 "전남농협도 제도 시행에 발맞춰 많은 홍보와 참여를 유도하고 전남 농업·농촌이 생기를 되찾도록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전남농협은 올해도 코로나19 사태가 지속되는 가운데 농축산물 소비 위축과 인건비·농자재 가격 상승 등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변화와 혁신을 예고했다. 무안군 삼향읍 지역본부 전경.

'새청무' 생산 늘리고 '강대찬' 육성
청년농업인·귀농인 늘려 활력
스마트 농업 보급 비용 최소화
밭농업 농기계 대행사업 확대
로컬푸드 직매장 80개로 확장
'농업인 행복버스' 운영
장수사진 촬영·의료 서비스



지난해 전남에서 3000명이 넘는 고령 농업인들이 전남농협 '농업인 행복버스'를 통해 의료 검진, 장수사진 촬영, 돋보기 제작 지원을 받았다.



전남농협은 지난해 6월 '전남쌀 종자주권 독립 선언'을 하며 식량안보를 지키고 국내산 쌀 재배의 기틀을 마련할 것을 다짐했다.



광주광역시 의사회



오랜 역사와 전통을 가진 광주광역시의사회는 145만 광주시민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광주광역시의사회장 **박유환**

대표전화. 062_529_2101

광주광역시 북구 무등로 218번길 25(신안동)

건강보험심사평가원「수술의 예방적 항생제 사용평가」

최우수 1등급 획득

동이병원

광주광역시 남구 대남대로 238 ☎ 062_650_2500